

## “감나무에 감이 없어요...” 영암 특산물 대봉감 수확량 급감

봄철 냉해·잦은 비로 예년보다 70~80% 감소 예상  
2017년 이후 내리 3년째 ‘흉작’... “농민들 타격 커”

영암의 특산물 대봉감이 봄철 저온현상과 잦은 비로 수확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정농협 등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대봉감 수확이 예년에 비해 70~8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겨울 비교적 따뜻한 이상고온으로 평

년보다 10여일 빨리 개화·발아한 상황에서 4월 초 저온에 노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꽃눈에 새순이 나올 무렵 서리가 내리고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새순이 썩는 냉해피해가 수확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올 여름 긴 장마와 태풍도 한 몫했다. 영암 대봉감의 흉작은 과잉생산으로 산지폐기가

지 했던 지난 2017년 이후 내리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금정농협 관계자는 “가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늘어져야 할 시기인데 큰 나무에 감이 아예 없거나 고작 3~4개가 달려 있을 정도”라면서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할 농민들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영암 금정의 대봉감 재배면적은 650ha로 단

일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600여 농가에서 연간 1만2000여t을 생산해 20억~3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효자작목이다. 영암 금정 대봉감은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봉감보다 당도가 높고 단맛이 풍부하며 비타민C 성분이 많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영암=조대호기자

## 광주 비정규직 38.4%, 전국 평균보다 낮아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최초 통계’ 노조 조직율 비정규직 6.7%

광주지역 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 꼴로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은 10%에도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14일 발표한 ‘2020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임금노동자는 58만7125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22만5307명으로 38.4%에 달했다. 전국 평균 41.3%보다 2.9% 포인트 낮았다.

비정규직은 임시직과 일용직, 상용직이면서 계약직, 상용직이면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성별로는 남성의 30.0%, 여성의 48.4%가 비정규직 신분이었다고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46.2%, 60대 이상 75.1%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수 3만 이상 산업별 분류에서는 숙박과 음식점업이 75.6%, 건설업 46.5%,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43.1%, 도소매업 35.8%, 교육서비스업 35.4%, 공공행정 국방과 사회보장 행정 31.1% 순이었다.

광주지역 전체 임금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38.13시간이었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43.41시간인 반면 비정규직은 31.03시간으로 12.38시간이 짧았다.

월 급여는 전체 평균이 254만9600원에 달한 가운데 정규직은 319만6700원, 비정규직은 151만500원으로 정규직 대비

47.25%에 그쳤다. 정규직은 전국 평균보다 11만4600원, 비정규직은 24만7600원 적었다.

6대 광역시와 비교하면 정규직은 울산(359만3300원) 대전(325만6800원) 다음으로 높지만 광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짧은 노동시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지역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0.5%고, 상위 10개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35.8%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고용 규모 상위 10개 기업 중 무려 4개 업체가 청소년미화·경비원을 고용하는 시설관리(용역)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각종 노동통계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재분석한 것으로 최초로 광주지역 노조조직률 통계도 담았다.

광주지역 노조조직률은 11.9%(6만9584명)로 전국 조직률(11.8%)과 유사했고 비정규직 조직률은 6.7%(1만5103명)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호 센터장은 “이번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 지역 비정규직 관련 정책 수립과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의 비정규직 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비정규직 권리찾기를 위해 조직화 사업과 다양한 연대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승호 기자



구례군 피아골 단풍 시작

구례군은 14일 피아골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으며 다음주부터 11월초까지 붉게 물든 단풍을 만끽하기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해남군, 고천암·영암호·금호호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차단

AI 예방·특별방역관리 총력

해남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고천암 등 주요 겨울철새 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차단한다.

축산차량 출입이 금지되는 철새도래지는 고천암, 영암호, 금호호 3곳이다.

군은 진입차량에 대해 우회도로 이용과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소독 등을 권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입구에는 통제조소를 설치해 차

량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입간판과 플래카드 등도 철새도래지 인근과 주요 도로변 133개소에 설치해 출입 차단을 안내하고 있다.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진입사유를 조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철새 이동로인 러시아, 대만 등 4개국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 철새

가 남하할 경우 전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방제기와 공동방제단 차량 등을 동원해 주 2회 이상 철새도래지를 소독한다.

또 축산사업소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AI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 대책상황실을 운영에 돌입했다.

기동취재본부

##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